

# 신선농산물 동남아 검역타결 가능 품목 수출조사

- 베트남 단감 -

2020. 01

# [ 목 차 ]

<b>I. 국내 시장동향</b>	<b>53</b>
1. 생산현황	53
2. 유통현황	62
3. 소비현황	65
4. 수출현황	67
<b>II. 베트남 시장동향</b>	<b>71</b>
1. 생산현황	71
2. 유통현황	75
3. 소비현황	77
4. 수입현황	78
<b>III. 시장현황비교분석</b>	<b>82</b>
1. 시장현황비교	82
2. 수출국 시장분석	83
<b>IV. 시장확대방안</b>	<b>85</b>
1. 품목유망성	85
2. 시장확대방안	87

# I. 국내 시장동향

## 1. 생산현황

### 1) 재배품종

#### □ 단감은 생리적 특성에 따라 △완전 단감과 △불완전 단감으로 분류됨

- 완전 단감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떫은맛이 사라지며 과육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부유, 차랑, 상서조생, 조완, 로망, 연수, 감풍 등이 있음
- 불완전 단감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과육 내 타닌 성분이 남아있어 떫은맛이 나며, 과육의 색이 갈색으로 변화하거나 반점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임
  - 감백목, 서촌조생, 선사환, 조홍시 등이 대표적인 불완전 단감 품종임

#### □ 국내에서 재배되는 단감 품종은 대부분 부유로, 편중 재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국산 품종이 개발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부유는 국내 단감 재배면적의 83% 이상을 차지하여 재배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임<sup>1)</sup>
  - 부유는 차랑과 함께 일본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단감 품종으로, 196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함
    - 국내에 단감 품종이 도입되기 전에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감 또는 일반 가정 마당에서 볼 수 있는 떫은 감이 대부분으로, 생과 대신 주로 홍시나 꽃감의 형태로 섭취하였음
  - 부유 도입 후 단감 소비가 증가하며 재배가 확대되었고, 이후 편중 재배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묘목을 새로 심을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착과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접갱신기술<sup>2)</sup>을 적용하여 부유 재배편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발생하는 공급 과잉과 가격 불안정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단감 품종이 육성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산 품종의 보급률 확대와 수입 품종 대체를 위해 2019년 기준 6개의 국내 단감 품종을 보급하고 있음
    - 수확기를 기준으로 조완(9월 하순), 원미·원추(10월 상순), 로망·연수(10월 중순), 감풍(10월 하순) 등이 보급되고 있음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9.02.27.)

2) 품종 고접갱신은 기존의 단감나무 높은 부위에 다른 품종을 접목시켜 갱신하는 방법을 일컫음

〈표 1-1-1〉 단감 주요 품종별 특징

품종	사진	주요 특징
부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 크기는 200~220g이며, 당도는 15~16° Bx 수준임</li> <li>·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수확함</li> <li>· 전체 수확량의 15~20% 정도가 저온저장 후 출하됨</li> </ul>
차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 크기가 230g 정도로 대과종에 속하며, 당도는 16° Bx임</li> <li>· 숙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임</li> </ul>
서촌조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 크기는 180~200g이며, 당도는 15° Bx 내외임</li> <li>· 9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조생종으로, 수분수로 활용하거나 추석용으로 수확함</li> </ul>
조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은 220g 정도이며 당도는 16.4° Bx 수준으로 식미가 우수함</li> <li>· 조생종, 특히 서촌조생의 대체용으로 육종되어 9월 중·하순경에 수확함</li> </ul>
로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용 완전단감 품종으로, 과중 185g 내외의 중과종이며 당도 18.6° Bx의 고당도 품종임</li> <li>· 숙기는 10월 중순으로, 상온 저장력은 20일 정도로 중간 정도임</li> </ul>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5g 내외의 중과종으로 평균당도 17.0° Bx 의 고당도 품종임</li> <li>· 과즙이 풍부하고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껍질째 섭취 가능함</li> <li>· 만개기는 부유 품종보다 2일 정도 빠르며, 숙기는 10월 중·하순임</li> </ul>
감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은 417g이며 당도는 약 15° Bx임</li> <li>· 과실 표면의 열과(열매터짐)나 꼭지들림 등 생리장해 발생이 적은 편임</li> <li>· 부유의 대체품종으로 개발되었으며, 부유보다 10일 정도 이른 10월 하순께 수확함</li> </ul>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http://nongsaro.go.kr/>)

## 2) 생산동향

### 가. 생산량 추이

#### □ 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은 10만 4,362톤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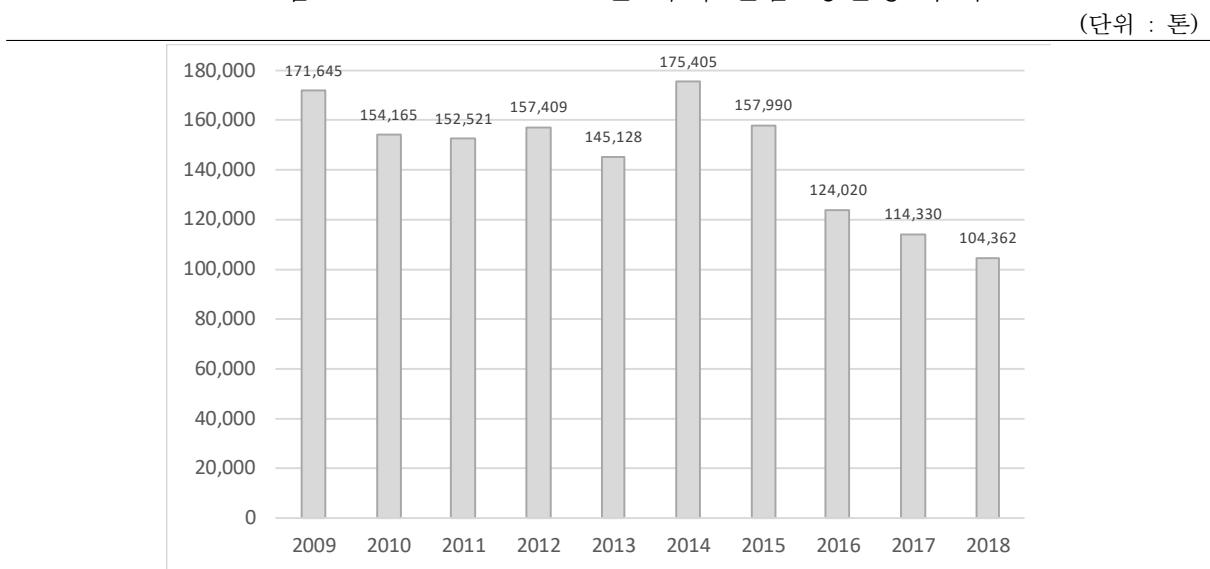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국내 단감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단감 생산량은 11월 상순에 발생한 이른 한파로 동해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전년대비 20.5%가량 감소함
  - 2016년에는 수확기 강우 피해로 꼭지들림<sup>3)</sup>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생육기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짐
- 2018년에는 생육기 가뭄 및 폭염과 더불어 단감 주 재배지인 경남과 전남지역에서 일소<sup>4)</sup>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함
  - 이와 더불어 동년 4월 발생한 저온피해로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단감 과수의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착과수가 줄어든 것 또한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침

〈표 I -1-2〉 2009~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1,645	154,165	152,521	157,409	145,128	175,405	157,990	124,020	114,330	104,362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그림 I -1-1〉 2009~2018년 국내 단감 생산량 추이



3) 과실이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꼭지의 꽃받침과 과실 사이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여 빗물 유입 또는 병균 침입으로 과실이 병들게 됨. 이러한 경우 과실이 물러지거나 부패하여 상품성과 저장성을 상실함  
 4)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과실 표면의 색이 회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의미함

□ 2018년 국내 단감의 주 재배지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전국 생산량의 89.3%를 차지함

- 경상남도의 단감 생산량은 6만 3,782톤, 전라남도의 생산량은 2만 9,419톤으로 집계됨
  - 경남은 전국 단감 생산량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은 28.2%를 차지함
  - 두 지역 모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12.4%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가뭄 및 폭염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일소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경상북도 4,948톤(4.7%), 울산광역시 2,793톤(2.7%) 등 단감이 생산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음

<표 I-1-3> 2018년 지역별 단감 생산량

(단위 : 톤, 톤, %, %)

순위	지역	2017년 생산량	2018년 생산량	비중(2018)	YoY
	전국	114,330	104,362	100.0	△8.7
1	경상남도	68,933	63,782	61.1	△7.5
2	전라남도	33,574	29,419	28.2	△12.4
3	경상북도	5,360	4,948	4.7	△7.7
4	울산광역시	2,726	2,793	2.7	2.5
5	광주광역시	1,456	1,088	1.0	△25.3
6	전라북도	753	1,080	1.0	43.4
7	제주도	753	660	0.6	△12.4
8	부산광역시	247	245	0.2	△0.8
9	충청남도	372	244	0.2	△34.4
10	대구광역시	39	42	0.04	7.7
11	대전광역시	28	30	0.03	7.1
12	경기도	36	27	0.03	△25.0
13	강원도	30	4	0.004	△86.7
14	서울특별시	-	-	-	-
15	인천광역시	-	-	-	-
16	세종특별자치시	1	-	-	-
17	충청북도	22	-	-	-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 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9,108ha로, 전년대비 5.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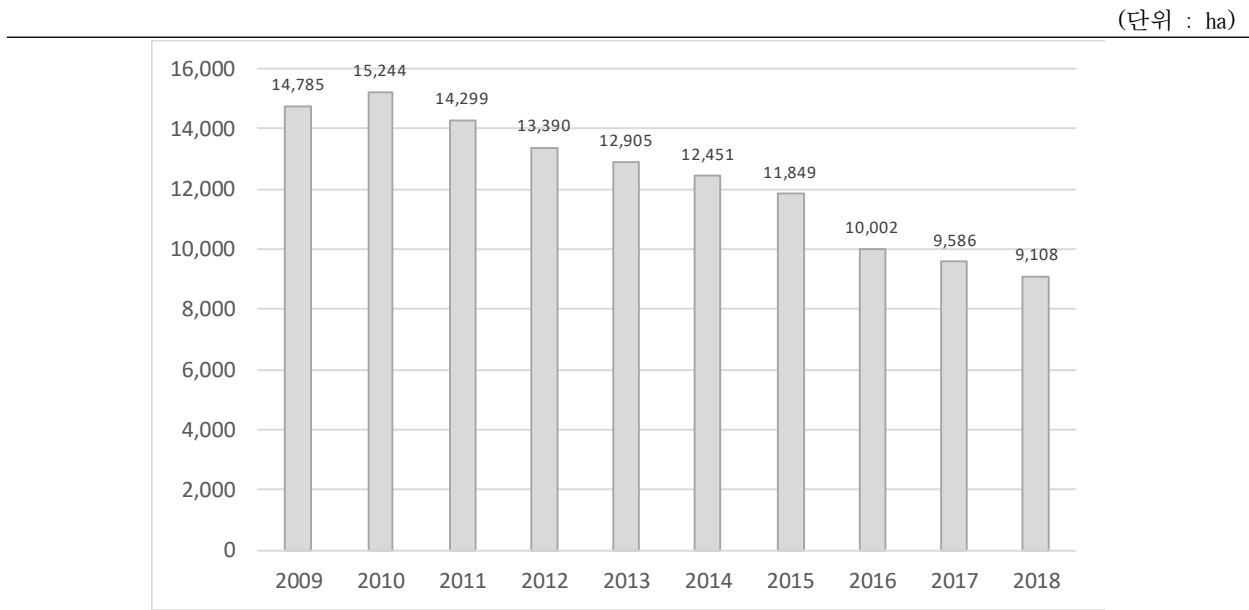
-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의 노동력 부족 및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음
-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폐원 등으로 인해 국내 단감 재배면적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 I -1-4〉 2009~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 추이

										(단위 : ha)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4,785	15,244	14,299	13,390	12,905	12,451	11,849	10,002	9,586	9,108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http://kostat.go.kr/>)

〈그림 I -1-2〉 2009~2018년 국내 단감 재배면적 추이



### □ 2018년 단감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로, 전국 단감 재배면적의 85.8%를 차지함

- 경상남도의 단감 재배면적은 5,150ha로 전국의 56.5%를 차지함
- 이는 전년대비 4.1% 감소한 수준으로, 2018년도 해당 지역의 단수는 1,239kg으로 집계됨
- 단감은 연평균 12℃ 이상에서 재배되는 난온대성 과실로,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초상(첫 서리)이 늦어 입지적으로 단감 재배에 유리함

- 전라남도의 단감 재배면적은 전국의 29.3%에 해당하는 2,673kg로 해당 지역의 재배면적 역시 전년대비 8.7% 감소함
  - 단수는 경상남도보다 조금 낮아 10a당 1,100kg의 단감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역 역시 단감 재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었지만,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산간지역이 적고 참다래 등 단감을 대체하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경남보다는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5〉 2018년 지역별 단감 재배면적

(단위 : ha,ha, %, kg, %)

순위	지역	2017년 재배면적	2018년 재배면적	비중( '18)	단수( '18)	YoY
	전국	9,586	9,108	100.0	1,146	△5.0
1	경상남도	5,371	5,150	56.5	1,239	△4.1
2	전라남도	2,928	2,673	29.3	1,100	△8.7
3	경상북도	554	556	6.1	890	0.4
4	울산광역시	242	242	2.7	1,154	0.0
5	제주도	95	144	1.6	458	51.6
6	광주광역시	176	141	1.5	769	△19.9
7	전라북도	114	115	1.3	938	0.9
8	충청남도	46	43	0.5	568	△6.5
9	부산광역시	30	28	0.3	881	△6.7
10	경기도	6	6	0.06	456	0.0
11	대전광역시	4	5	0.05	654	25.0
12	대구광역시	3	4	0.04	1,167	33.3
13	강원도	6	1	0.01	357	△83.3
14	서울특별시	-	-	-	-	-
15	인천광역시	-	-	-	-	-
16	세종특별자치시	8	-	-	-	-
17	충청북도	3	-	-	-	-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농림어업(<http://kostat.go.kr/>)>

## 다. 작기 및 출하기

□ 단감은 3월에서 11월까지 생장 및 성숙하는데, 휴면기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이 매년 반복됨

- 단감은 2월 하순 경 휴면기가 완료되며 생육 및 성숙기를 거친 후 11월 하순부터 낙엽과 동시에 휴면기가 시작됨
  - 3월 하순부터 발아가 시작되면 잎이 전개되고, 5월 중·하순부터는 개화가 시작됨
  - 개화와 수정이 완료되면 과실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며, 9월 이후부터 성숙 때까지는 착색과 함께 가장 많이 비대해짐
    - 개화 후 성숙기까지 과실 크기는 약 60배 정도 비대해짐



- 조생종의 경우 생육을 위해서는 190~220일 이상이 필요하며, 부유 등 만생종은 230~250일이 필요함
- 묘목을 심은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과실이 달리기 시작하며, 40년 경과 후에는 과수가 노쇠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단감의 품질이 낮아짐

〈표 1-1-6〉 단감 재배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육기	휴면기	-	발아기 전엽기	개 화 기	생리적 낙과기	화아 분화기	-	착색기 성숙기	-	-	-	휴면기
재배 관리	정지, 전정		-	적외	적 과	하계 전정	-				정지, 전정	
	관수, 배수, 제초											
시비	밑거름 주기		-			여름 거름주기		-		가을 거름 주기	-	밑거름 주기

\* 출처 : 창원단감테마공원(culture.changwon.go.kr)

#### □ 단감은 보통 9월 하순에서 11월 중·하순 사이에 수확함

- 품종별로 수확시기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완료함
  - 단감은 수확시기에 크기가 급격하게 비대해지거나 착색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적절하게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색, 당도, 크기, 과육경도 등에 따라 수확 여부를 결정함
- 9월 중·하순에 조생종 단감 수확을 시작으로 11월 중·하순 만생종 수확까지 이어짐
  - 국내 단감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는 만생종으로, 수확기가 늦어지면 서리나 동해 피해가 자주 발생함

〈표 1-1-7〉 품종별 단감 수확기

구분	9월			10월			11월			주요 품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조생종										서촌조생
중생종										상서조생
만생종										부유, 차랑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http://nongsaro.go.kr/)

##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신선 단감은 크기, 선택, 속도, 결점과 등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됨

- 특 등급 단감은 날개의 크기가 고르며, 속도가 균일하고 결점이 없어야 함
  - 뒤이어 크기 차이와 착색비율, 속도, 결점 정도에 따라 상, 보통 등급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이 규정됨

〈표 1-1-8〉 국내 단감 표준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하기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하기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선택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60% 이상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속도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속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부패·변질과를 제외하고 5% 이하인 것
⑤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단감의 크기는 3L에서 3S까지 7가지 등급으로 구분됨
  - 가장 작은 3S 크기와 가장 큰 3L 크기는 중량이 약 2배 차이가 남

〈표 1-1-9〉 국내 유통되는 단감 크기 구분

(단위 : g/개)

3S	2S	S	M	L	2L	3L
150 미만	150 이상~ 167 미만	167 이상~ 188 미만	188 이상~ 214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단감 재배 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준수해야 하며,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음

-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됨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준 이하의 농약만 사용되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단감 재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제품은 2018년 12월 기준 약 819개가 확인됨
  - 재배 시 사용이 제한된 농약성분으로는 프로사이미돈(21.4), 이피엔(7.1), 피페로닐부톡사이드(7.1) 등이 있음
  - 단감 재배 시 사용 가능한 등록농약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nongsaro.go.kr](http://www.nongsaro.go.kr))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pis.r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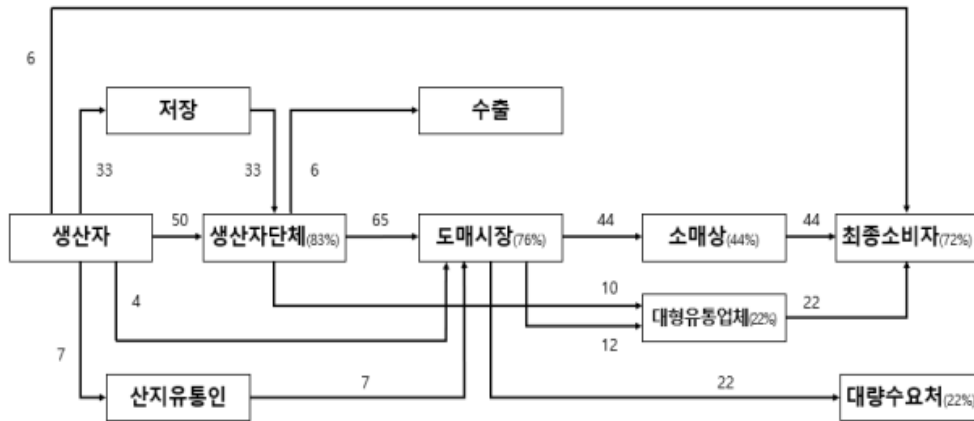
## 2. 유통현황

### 1) 유통구조

□ 국내에서 생산된 단감은 크게 《생산자단체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의 경로로 유통됨

- 단감 출하량 중 83%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로 유통됨
  - 산지유통인의 활동은 미미한 편이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출하된 단감 물량의 33%는 저장과정을 거친 후 생산자단체로 유통됨
  - 생산자단체로 출하된 단감은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상이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도달됨

〈그림 1-2-1〉 국내 단감 유통경로(2016년)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2016)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연중공급을 위해 단감은 저장과정을 거치며, 상품성 및 시장가격에 따라 저장 비율과 저장량이 조정됨
  - 10월 초에서 11월 말 사이에 수확한 단감을 저장하여 보통 다음해 4월 초까지 출하함
    - 저장 방법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함

저장 방법	상온 저장	저온 저장	포장 후 저온 저장
저장 기간	1주	4주	3~5개월

- 과일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는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물량을 출하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단감을 저장 출하하여 가격하락에 대응함

## 2) 도·소매가격

□ 2018년 단감의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1kg 당 3,155원으로 전년대비 17.5% 상승함

- 동년 국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8.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감 출하량 또한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단감의 평균 도매가격은 1년 중 2~3월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출하량 감소 및 구정 제수용 단감의 물량확보를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감은 일반적으로 설 대목 출하를 위해 10월 하순 또는 11월 상순부터 저장이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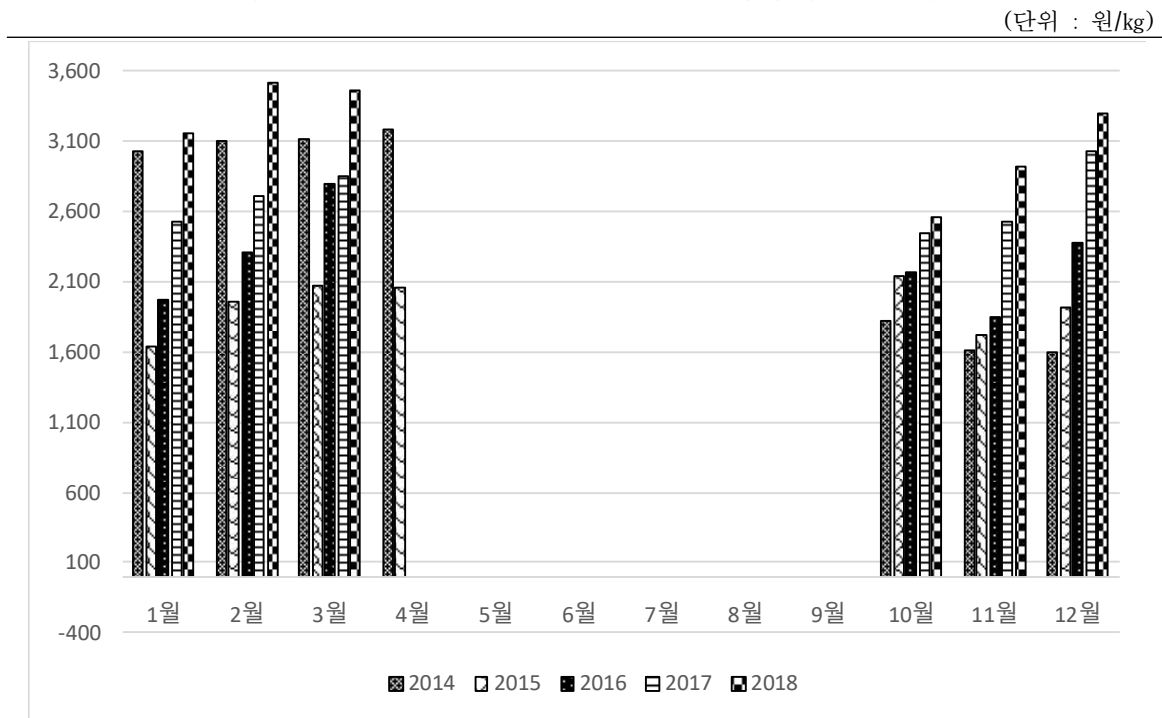
<표 1-2-1> 2014~2018년 단감 도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3,026	3,105	3,113	3,187	-	-	-	-	-	1,821	1,615	1,603	2,475
2015	1,632	1,963	2,069	2,052	-	-	-	-	-	2,141	1,726	1,911	1,905
2016	1,967	2,302	2,794	-	-	-	-	-	-	2,170	1,843	2,382	2,252
2017	2,527	2,712	2,846	-	-	-	-	-	-	2,446	2,530	3,025	2,684
2018	3,156	3,520	3,459	-	-	-	-	-	-	2,551	2,914	3,294	3,155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1-2-2> 2014~2018년 단감 도매가격 월별 추이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2018년 단감 평균 소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개당 1,092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함

- 도매가와 마찬가지로 2~3월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
  - 2월의 단감 소매가격이 개당 1,217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0.1% 상승함
    - 2017년 경상남도 지역에서 생육기 가뭄으로 중량이 미달된 비상품과가 대량 발생하여 많은 농가에서 단감 수확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총 단감 생산량이 감소하며 2018년 초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생산량 감소로 대과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저장량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저장 감 출하량도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표 1-2-2〉 2014~2018년 단감 소매가격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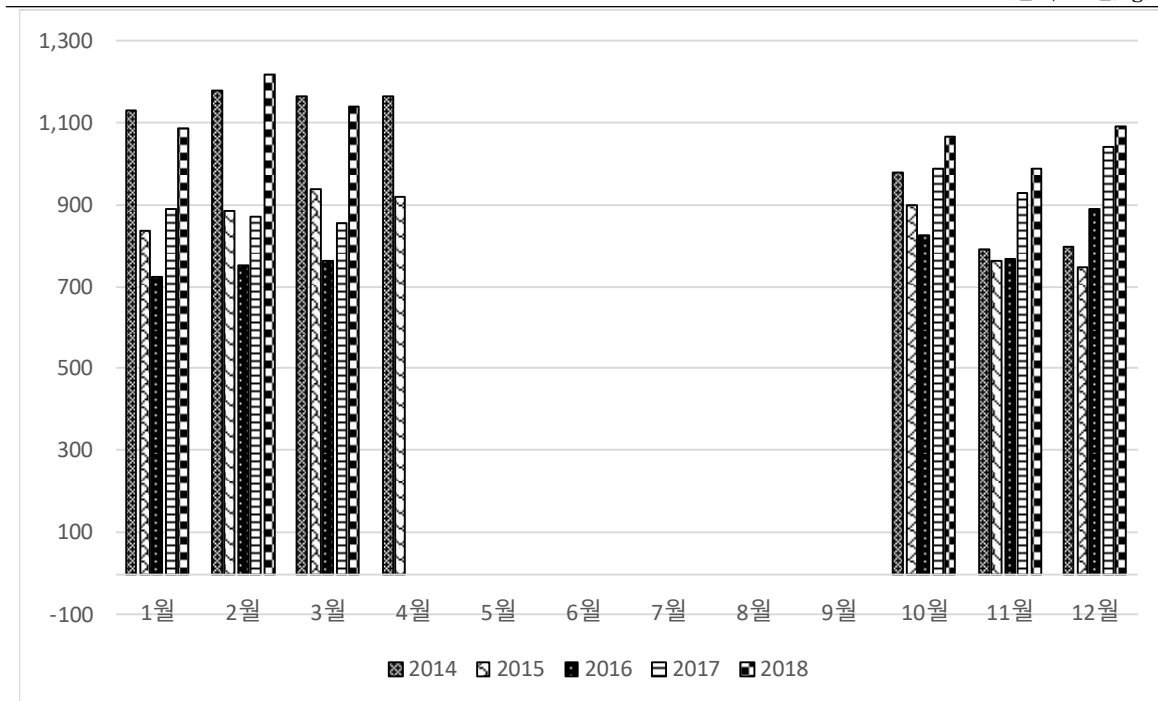
(단위 : 원/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1,129	1,178	1,163	1,162	-	-	-	-	-	979	789	796	1,018
2015	835	886	936	917	-	-	-	-	-	900	762	749	846
2016	724	751	763	-	-	-	-	-	-	826	765	890	784
2017	887	868	854	-	-	-	-	-	-	989	928	1,039	922
2018	1,083	1,217	1,137	-	-	-	-	-	-	1,067	989	1,091	1,092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1-2-3〉 2014~2018년 단감 소매가격 월별 추이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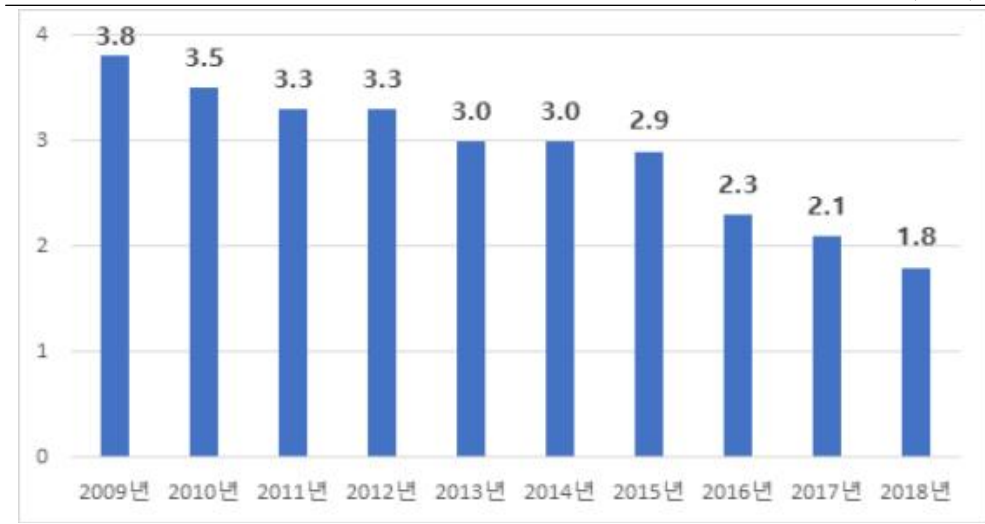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3. 소비현황

□ 국내 단감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비량 역시 줄어드는 추세임

- 2018년 1인당 연간 단감 소비량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1.8kg으로 추정됨
- 2017년 기준 단감의 국내 총 소비량은 10만 7,000톤, 1인당 소비량은 2.1kg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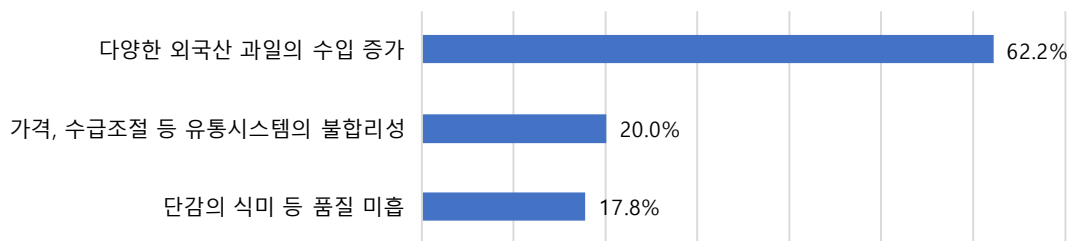
〈그림 I-3-1〉 2009~2018년 1인당 연간 단감 소비량 추이  
(단위 : 개)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9.05.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조사한 소비자 설문결과<sup>5)</sup>에 따르면, 단감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원인으로 ‘다양한 외국산 과일의 수입증가’가 꼽힘
- 뒤이어 ‘가격, 수급조절 등 유통시스템의 불합리성’, ‘단감의 식미 등 품질 미흡’ 등으로 인해 단감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응답함

〈그림 I-3-2〉 단감 소비감소 이유



\* 출처 : 경상남도청 온라인 패널조사(www.gyeongnam.go.kr), 「단감 소비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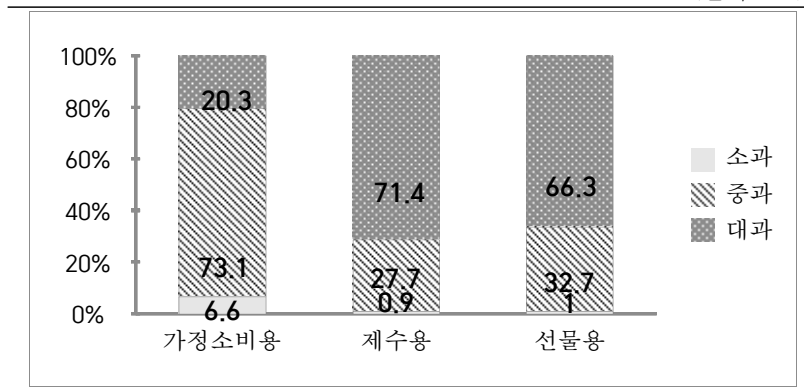
5) 경상남도청 온라인 패널조사, 「단감 소비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2018.05.01.~2018.05.31.)

□ 단감은 일반적으로 중·대과 사이즈가 선호되나, 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제수용 및 선물용 소비의 경우, L~3L 사이즈(214g~300g 이상)의 대과를 선호함
  - 제수용 소비 시 대과 선호 비중은 71.4%에 달하며, 선물용 소비 시에는 전체의 66.3%가 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정소비용의 경우 M사이즈(188g~214g)의 중과 선호도가 높는데, 전체 응답자의 73.1%가 생식용 소비로 중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3> 단감 용도별 선호 크기

(단위 : %)



\* 주 : 단감 크기는 소과(3S, 2S, S), 중과(M), 대과(L, 2L, 3L)로 구분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조사(www.krei.re.kr)(2016.12.22.-2016.12.23.)

□ 국내에서 단감은 주로 생식용으로 섭취하며, 가공형태는 술, 식초, 음료 등으로 한정적인 편임

- 2016년 기준 단감 생산량 12만 4,020톤 중 가공용 물량은 약 371톤으로, 약 0.3%에 불과함
  - 가공용 소비는 식초, 음료 및 기타, 주스 등으로 제조 시 사용되는데, 동년 단감 식초 제조를 위한 단감 소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3-1> 2006~2016년 단감 가공형태

(단위 : 톤)

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0	0	702	300	108	69	72	142	292	313	371
식초	0	0	700	250	78	55	67	139	119	148	255
음료 및 기타	0	0	2	0	0	2	3	1	172	164	100
주스	0	0	0	0	0	0	0	0	0	0	16
술	0	0	0	50	30	12	1	1	1	1	0
통조림	0	0	0	0	0	0	0	0	0	0	0
네티 <sup>6)</sup>	0	0	0	0	0	0	0	0	0	0	0
잼	0	0	0	0	0	0	1	1	0	0	0

\* 출처 : 2015 과실류 가공현황.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6) 과실을 간 후 체로 거른 죽 상태의 액즙을 원료로 가공한 것



#### 4. 수출현황

##### 1) 단감 수출현황

□ 2018년 한국산 단감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9.2% 감소한 5,660톤으로 집계됨

- 수출물량 감소는 당해 연도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국내 단감 생산량 11만 4,330톤 중 수출물량은 7,002톤으로 수출량은 생산량의 6.1%를 차지함
  - 2018년 수출량은 5,660톤으로 전체 생산량 10만 4,362톤 중 약 5.4%의 비중을 차지해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7%가량 감소함
- 2018년도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로, 전체 수출물량의 약 45.6%에 달하는 2,581톤이 수출됨
  - 말레이시아는 2012년 이후 매 해 전체 수출물량의 최소 37%에서 최대 49%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임
- 이 외에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으로 한국산 단감이 수출되고 있음
  - 동년 싱가포르로의 수출물량은 833톤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함
  - 또한 對필리핀, 홍콩으로의 수출은 각각 706톤(12.5%), 687톤(12.1%)으로 집계됨

〈표 I-4-1〉 2009~2018년 한국 단감 수출현황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N/A	N/A	N/A	8,744	7,361	8,428	8,612	6,818	7,002	5,660
1 말레이시아	N/A	N/A	N/A	4,090	3,376	3,328	3,362	2,542	3,414	2,581
2 싱가포르	N/A	N/A	N/A	1,294	1,221	1,177	1,483	753	892	833
3 필리핀	N/A	N/A	N/A	657	586	993	802	933	729	706
4 홍콩	N/A	N/A	N/A	910	606	1,051	1,189	857	838	687
5 캐나다	N/A	N/A	N/A	1,062	730	1,002	797	535	421	455
6 태국	N/A	N/A	N/A	311	247	364	537	763	412	208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한국산 단감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1.3달러(한화 약 1,547원)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로의 수출단가는 평균 이하인 1.1달러(한화 약 1,309원)/kg로 집계됨

- 싱가포르로의 수출단가는 1.2달러(한화 약 1,428원)/kg로 나타남
- 필리핀, 홍콩, 캐나다, 태국으로의 수출단가는 평균에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남
  - 필리핀, 캐나다, 태국으로의 수출단가는 kg당 각각 1.6달러(한화 약 1,904원)로 집계되었으며, 홍콩으로의 수출단가는 1.5달러(한화 약 1,785원)로 확인됨

〈표 1-4-2〉 2009~2018년 한국 단감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N/A	N/A	N/A	1.5	1.4	1.5	1.3	1.3	1.1	1.3
1 말레이시아	N/A	N/A	N/A	1.3	1.3	1.4	1.2	1.1	1.0	1.1
2 싱가포르	N/A	N/A	N/A	1.4	1.3	1.4	1.2	1.1	1.1	1.2
3 필리핀	N/A	N/A	N/A	1.8	1.7	1.7	1.4	1.4	1.3	1.6
4 홍콩	N/A	N/A	N/A	1.5	1.5	1.6	1.4	1.3	1.2	1.5
5 캐나다	N/A	N/A	N/A	1.8	1.7	1.6	1.5	1.4	1.4	1.6
6 태국	N/A	N/A	N/A	1.7	1.5	1.7	1.4	1.4	1.3	1.6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단감 수출은 9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2월까지 진행되며, 단감의 주 출하기인 10월과 11월 최대 물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10월과 11월의 수출물량은 각각 1,458톤과 3,167톤으로, 두 달간 전체 수출의 51.8%에 달하는 물량이 수출됨
-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은 10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1월까지 진행되며, 11월에 연간 최대 물량인 1,527톤이 집중적으로 수출됨
- 이 외 국가로도 10월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11월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경우 익년 1월까지, 필리핀과 홍콩으로는 익년 2월까지 소량의 단감 수출이 이어짐

〈표 1-4-3〉 2018년 한국 단감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484.9	9.6	-	-	-	-	-	-	60(kg)	1,457.8	3,166.6	616.7
1 말레이시아	174.9	-	-	-	-	-	-	-	-	688.7	1,527.2	190.5
2 싱가포르	75.7	-	-	-	-	-	-	-	-	192.8	525.5	39.2
3 필리핀	96.7	8.2	-	-	-	-	-	-	-	76.8	328.6	195.4
4 홍콩	3.8	1.4	-	-	-	-	-	-	-	259.4	323.2	99.6
5 캐나다	56.8	-	-	-	-	-	-	-	-	106.3	271.8	19.6
6 태국	-	-	-	-	-	-	-	-	-	38.2	130.5	58.8

\* 주: HS Code 0810.70-1000(단감) 기준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로 수출되는 단감 품종은 부유로, 최근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로망 등 타 품목이 육성되고 있음

- 국내 생산량의 약 80%가량을 차지하는 부유가 주로 수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생산 및 수출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고당도 중생종 품종인 로망을 개발하여 수출용 품종으로 선발함
- 신품종인 로망은 저장성이 좋아 수출국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유를 대체할 수 있는 新수출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 베트남 수출추이

□ 2019년 말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단감의 검역요건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로 베트남으로 한국산 단감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 2020년도부터 생산 예정인 감 생과실은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20년 1월 중 제정 예정)을 준수하여 수출이 가능함
- 양국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이 2019년도에 생산(수확)된 한국산 감 생과실에 한해 검역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을 허용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수출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수출검역 후 수출이 가능함
-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해당 화물은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9종)\*·흙·식물잔재물 등이 없어야 함

---

\* 참고: 한국산 감 생과실에 대한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9종)

-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검은별무늬병(*Fusicladium levieri*)
- 과일부패병(*Pestalotia diospyri*)
- 벚초파리(*Drosophila suzukii*)
-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
- 산호세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
- 굴깍지벌레(*Lepidosaphes conchiformis*)
- 긴숨깍지벌레붙이(*Phenacoccus aceris*)
-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 
- 이후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부기사항 없음)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며, 베트남 도착 후에는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
  -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됨

□ 베트남으로 국산 감 수출 시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 베트남 관세율표 상 단감은 별도로 분류되지 않으며, 감(HS Code 0810.70-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검역협상 타결로 2020년부터 베트남으로 단감 수출이 가능해짐

〈표 I -4-6〉 2018년 베트남 단감 관세율표

HS Code	품명	세율		
		기본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0810.70-00	감(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0%	0%

\*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 II. 베트남 시장현황


### 1. 생산현황

#### 1) 재배품종

□ 단감은 온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로, 베트남 고원지대에서도 단감을 포함한 감을 재배하고 있음

- 베트남 북부 지역과 남부 달랏(Dalat)<sup>7)</sup> 고원 지역에서 소량의 감이 재배되고 있으나 품질이 낮아 상품성이 떨어짐
  - 단감과 같은 아열대 작물은 베트남 홍강(Sông Hồng) 삼각주를 기준으로 북동, 북서쪽 고원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 남부 달랏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은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단감의 대표적인 형태로, 황색의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식감이 부드러운 편임
  - 일본에서 들여온 부유(Fuyu) 외에도 Hong Hac Tri 등의 재래종이 재배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II-1-1> 베트남 단감 Hong Hac Tri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실 크기는 평균 100~120g 정도임</li><li>-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붉게 익으면 수확함</li><li>- 씨가 없으며, 쉽게 물러짐</li></ul>
---	---

\* 출처 : 베트남 농업유전학연구소(Agricultural Genetics Institute)(kopia-vietnam.tistory.com)

- 베트남에서는 단감 품종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베트남 농업유전학연구소에서 개발한 MC1은 일본 부유에서 파생된 품종으로, 평균 중량 220~270g의 사각형 단감임
    - 8월에 숙성되어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수확하며, 1ha 당 19톤 생산이 가능해 수확량이 높은 편임
    - 평균당도는 12~16° Bx, 산도 0.1% 수준의 품종으로 씨가 없는 것이 특징임

7) 베트남 달랏 지역은 해발 1,5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연평균 18~23℃의 기온을 보이며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임. 연간 1,750mm의 강수량과 2,000시간의 일조시간으로 농산물 재배에 최적화된 기후 조건을 갖춘

<그림 II-1-2> 베트남 단감 MC1 품종



\* 출처 : 베트남 농업유전학연구소(Agricultural Genetics Institute)(kopia-vietnam.tistory.com)

## 2) 생산동향

### 가. 생산량 추이

#### □ 베트남 단감 생산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음

- 베트남 현지매체 정보에 의하면, 바오 옌(Bao Yen) 지방 바오 하(Bao Ha) 지역의 감 생산량은 매년 10~15%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UN환경계획(UNEP)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협력사업(UN-REDD) 추진으로 과수원의 시설 정비와 식품 안전 및 위생 인증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감 생산기반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 베트남 내 단감 주 생산지는 달랏(Da Lat)과 목쩌우(Moc Chau) 지역으로, 2016년 기준 재배면적은 약 450ha로 추정됨

- 달랏 지역의 약 370ha와 목쩌우 지역의 약 80ha 재배지에서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수익성이 높은 타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향후 단감 재배 면적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1-3〉 베트남 단감 재배지역



#### 다. 작기 및 출하기

##### □ 단감은 7월 말에서 11월까지 주로 수확함

-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까지 발아한 이후, 3~4월 경 개화를 시작함
- 묘목을 심은 후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 과실을 맺기 시작함

####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 램동(Lam Dong)성 인민위원회에서는 품질규격을 충족한 단감에 대해 ‘Hong Da Lat’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해당 인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2018년 5월, 램동성은 단감의 색, 냄새, 맛, 형태 등 기준을 충족한 7개 품종에 대해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함
  - 공통 기준으로는 △노란 빛깔의 붉은 색 과실과 밝은 녹색의 꼭지일 것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등이 있으며, 품종별로 외관 및 과중 등 규격이 상이함
  - 품종별로 하기의 품질규격을 충족하여야 ‘Hong Da Lat’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표 II -1-1〉 단감의 ‘Hong Da Lat’ 인증 품질 규격

품종명	외관	과중	품질 특징
부유 (Giống hồng Fuyu)	납작한 형태이며 과육이 붉은 색을 띠며 붉은 노란색일 것	평균 225g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여 떫은 맛이 없음
Tansung - Si 감 (Giống hồng Tansung - Si)	윗 부분이 뾰족한 모양의 타원형 과실이며, 껍질은 주황색일 것	200~250g	과육이 단단하고, 씨가 없거나 최대 2개의 씨가 있음
중국 감(원추형) (Giống hồng China - Conical)	원추형 노란색 주황색 껍질	200~250g	과육이 강하고 유연함 1~2개의 씨가 있음
중국 감(장방형) (Giống hồng China - Oblong)	윗 부분이 평평하며, 과실 오른쪽 방향으로 깊이가 많은 편평한 모양 표면에 주름이 있음 신선한 오렌지색이며 익으면 붉어짐	230~350g	부드러운 식감이며, 씨가 없고 과즙이 많은 편
베트남 감 Giống hồng Vietnam - Oblong	계란형 껍질이 두꺼움 녹색빛을 띠는 주황색	100~120g	단단하고, 탄닌 함유량이 높은 편이나 익으면 단맛이 강해짐 씨가 많음
Giống hồng vương ông Đồng	납작한 형태, 가장자리가 4개. 광택이 도는 주황색. 익으면 과실 색이 오래 유지됨	150~200g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함 씨가 없음
Giống hồng Tám Hải	평평하고 긴 형태	200~250g	과즙이 많고 부드러운 식감 열매에 보통 1-2개의 씨가 있음

\* 출처: 베트남 램동 성 인민위원회 규정(램동 지방에서 발행한 Hong Da Lat 인증 마크의 관리 및 사용 규정에 관한 결정문 900 / QĐ-UBND)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2008년부터 VietGAP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 단감 또한 VietGAP 인증 가능 품목에 해당하여 재배지 토양과 농수, 생산 및 저장기술 등을 평가하여 인증이 발행됨



## 2. 유통현황

□ 단감은 주로 수입과일 판매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수입과일 판매점 및 대형마트에서는 뉴질랜드산 단감이 유통되며, 재래시장에서는 베트남산 및 중국산 단감이 유통됨<sup>8)</sup>
- 현지조사 시기인 7월에는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산 단감이 주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됨
  - 2019년 7월 기준 베트남 유통채널에서 유통되는 뉴질랜드산 단감 가격은 평균 kg당 452,300동(한화 약 2만 3,655원) 수준으로 조사됨
  - 수입과일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단감은 100g당 54,900동(한화 약 2,860원)에 판매되며, 대형마트에서는 100g당 35,560동(한화 약 1,852원)에 판매됨

〈그림 II-2-1〉 유통채널별 뉴질랜드산 단감 가격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처 : 수입과일 판매점(Klever Fruits)</li> <li>- 중량 : 개당 약 285g</li> <li>- 가격 : 1팩 당 312,930동(한화 약 1만 6,366원) 100g당 54,900동(한화 약 2,86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처 : 대형마트(VinMart)</li> <li>- 중량 : 개당 약 279g</li> <li>- 가격 : 1팩 당 198,425동(한화 약 1만 377원) 100g당 35,560동(한화 약 1,852원)</li> </ul>

\* 출처 : 베트남 하노이 클레버프루츠(Klever Fruits), 빈마트(Vinmart), 2019.07.22.

□ 일반적으로 단감 두 개를 묶어 판매하고 있으며, 유통채널에 따라 포장용기에 차이가 있음

- 수입과일 판매점에서는 종이상자에 포장재를 깔아 제품을 포장함
  - 수입과일 판매점은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단감 또한 프리미엄 매장을 지향하는 매장 정책에 따라 판매처 자체 상표를 부착하고 라벨링 상에 수입처를 명시함
- 대형마트에서는 스티로폼 용기에 제품을 담아 플라스틱(비닐) 랩을 씌운 형태로 포장함

8) 수입업체 인터뷰 결과(2019.07.25.)

- 대형마트의 단감 제품에는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음

<그림 II-2-2> 단감 라벨링 예시

	
<p>수입과일 판매점(Klever Fruits)</p>	<p>대형마트(VinMart)</p>

\* 출처 : 베트남 하노이 클레버프루츠(Klever Fruits), 빈마트(Vinmart), 2019.07.22.

### 3. 소비현황

#### □ 베트남에서 단감은 주로 제수용으로 사용됨

- 베트남 중추절(Trung Thu, 음력 8월 15일)과 구정(Tet, 음력 1월 1일)에는 감을 비롯한 과일을 차례상에 올리는 전통이 있음
- 감이 생산되는 북부 지역의 소비자들은 베트남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상에 감을 올리는데, 차례상에서 붉은 색의 단감은 활력과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함

#### □ 베트남산 단감 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 정부 차원의 행사가 개최된 바 있음

- 선라(Son La)성 정부와 롯데마트가 협력하여 2018년 8월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광고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음
- 약 일주일 간 롯데마트 하노이 지점은 베트남 북부 선라 지역에서 생산된 감, 땅콩, 바나나 등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함

#### □ 수입산 단감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산 부유 단감은 고가에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편임
- 베트남 목찌우(Moc Chau) 지역에서 일본산 단감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본에서 수입한 단감이 더 아삭하고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베트남의 과일 수입업체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단감은 베트남산을 비롯하여 뉴질랜드산과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산 단감의 맛과 품질에 대해 자국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베트남 현지조사 결과, 한국산 단감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거의 없는 수준임

- 한국과 베트남 간 검역타결 이전에는 공식적인 수입이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단감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4. 수입현황

##### 1) 베트남 단감 수입현황

□ 2018년 베트남의 단감 수입물량은 약 4만 1,729톤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전체 수입물량 중 중국산 감의 수입비중은 99.7%에 달함
  - 2018년 베트남의 중국산 감 수입량은 4만 1,619톤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함
-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감 수입비중은 각각 0.06%와 0.02%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뉴질랜드산 감 수입량은 27톤, 호주산 수입량은 7톤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한국산 단감은 검역타결 이전 시점으로 수입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9년 12월 한국과 베트남의 검역타결로 2020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인 수입이 가능해짐

〈표 II-4-1〉 2009~2018년 베트남 단감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	-	-	13,874	25,893	22,853	34,245	39,213	44,526	41,729
1	중국	-	-	-	13,672	25,587	22,746	34,031	38,950	44,374	41,619
2	뉴질랜드	-	-	-	-	-	6	13	11	11	27
3	호주	-	-	-	-	1	4	-	-	-	7

\* 주1) HS Code 0810.70(단감) 기준

\* 주2) 베트남 단감 수입통계치의 신뢰도가 부족해 주요 수입국의 對베트남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함

\*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베트남 내 수입산 단감은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일본산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입산 단감은 별도의 수입산 과일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채널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현지 유통업체 의견에 따르면, 정식 통관 외에도 보따리상을 통한 수입산 단감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중국산 단감에는 방부제 처리가 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단감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음
  - 베트남산 단감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산 단감은 상대적으로 납작한 모양이며 겉면에 갈색 반점이 적은 노란색 단감임
  - 이에 반해 베트남산 단감은 크기가 작은 타원형 과형이며 껍질이 상대적으로 녹색을 띠

## 2) 수입제도 및 규격

### 가. 통관 및 검역

□ 2019년 말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단감의 검역요건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로 한국산 단감 수입이 허용됨

- 양국 정부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한국산 감 사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sup>9)</sup>이 제정되었으며 베트남으로 단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매년 4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한국산 단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등록하여 베트남 식품검역당국(PPD)에 통보해야 함
    - 단감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재배지 검역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우려병해충의 무발생 또는 저발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선과장은 외부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 수출검역에 필요한 시설, 병해충 제거를 위한 에어컴프레셔, 베트남 수출전용 저온저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베트남 수출용 감 사과실 포장 시 위생적이고 사용된 적 없는 깨끗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상자 외부에 ‘베트남 수출용(For Vietnam)’ 문구 및 필수 기재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함
    - 영문 기재사항으로는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등이 있음
  - 베트남으로 단감 수출 시 사전에 발급받은 베트남 식품검역당국(PPD)의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해당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동 감 사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 fruits (*Diospyros kaki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 문구가 부기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2019년산 저장 단감도 별도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음
  - 2019년산 단감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통해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 식품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해당 식품검역증명서에는 ‘한국산 감 사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부기사항이 없음

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1호(2020.1.8. 제정)

- 해당 요건은 2019년에 생산 및 수확된 한국산 단감에만 적용되며, 2020년도 생산 예정인 단감의 경우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야 함

## 나. 라벨링

- 2017년 6월 베트남 정부는 상품 라벨링 시행령(Decree 43/2017/ND-CP)을 새롭게 발효하였고, 단감의 경우 식품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라벨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포함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보다 글자 크기가 작아야 함
  -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상품명, 상품 책임주체의 이름 및 주소, 제품 원산지, 기타 품목별 세부사항, 유통기한 등이 있음
    - 유통기한의 경우 소비기한(Use By Date)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월-년’ 형식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안전성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별도의 식품안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CODEX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식물보호 화학약품 허용기준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약품(mg/kg)을 기준치 이상 함유할 수 없음
  - 또한, 식품 내 잔류하는 중금속 허용기준치는 CODEX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살충제 성분 등 식품에 허용되는 유해물질잔류기준은 2017년 시행된 보건부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MOH를 따름
  - 해당 기준에 따른 살충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하기와 같음

〈표 II-4-2〉 베트남 식품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단위 : mg/kg)

물질명	제한기준	물질명	제한기준
Azocyclotin	0.5	Iprodione	10
Bifenthrin	1	Lindane	3
Bromide ion	30	Malathion	1
Bromopropylate	2	Mevinphos	1
Captan	20	Penconazole	0.1
Carbaryl	7	Permethrin	1
Chinomethionat	0.2	Phosphamidon	0.2
Clofentezine	2	Pirimicarb	0.5
Cycloxydim	0.5	Pirimiphos-methyl	1
Cyhexatin	0.5	Procymidone	10
Deltamethrin	0.05	Propamocarb	0.1
Diazinon	0.1	Propargite	7
Dichlolanid	10	Propoxur	3
Dichloran	10	Pyrazophos	0.2
Dimethoate	1	Thiabendazole	3
Dodine	5	Thiophanate-methyl	5
Ethoprophos	0.02	Tolyfluanid	3
Fenarimol	1	Triadimefon	0.1
Fenbutatin oxide	10	Triadimenol	0.1
Fenitrothion	0.5	Triazophos	0.05
Folpet	20	Triforine	1
Hexythiazox	0.5	Vinclozolin	10
Imazalil	2		

\* 출처 : 베트남 보건부(www.moh.gov.vn), 미국 농무부(USDA)(www.usda.gov)

### III. 시장현황 비교 · 분석

#### 1. 시장현황 비교

□ 2020년부터 한국산 단감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시장진입전략 수립이 요구됨

- 한국의 단감 생산량은 10만 4,362톤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주로 출하되며, 베트남에서는 극히 소량의 단감이 7월부터 11월까지 생산되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베트남 모두 부유 위주의 단감이 생산되며, 이 외에도 국가별로 자체 육성한 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8년 한국산 단감의 수출물량은 5,660톤으로 kg당 1,547원에 수출되었음
  - 동년 베트남은 4만 1,729톤의 단감을 수입하였으며 수입단가는 kg당 평균 1,785원으로 나타남

구분		한국	베트남
생산	생산량(2018)	104,362톤	N/A
	생산시기	9~11월	7월 말~11월
	생산품종	부유, 차랑, 서촌조생 등	부유, Hong Hac Tri, MC1 등
유통	도매물량(2018)	N/A	N/A
	도매가격(2018)	3,155원/kg	N/A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5,660톤	[전체] 41,729톤
	수출입가격(2018)	[평균] 1,547원/kg	[평균] 1,785원/kg
	관세율	對베트남 신선 단감 수출 시 기본 25%의 관세율 부과	

\* 주1) 對베트남 단감 수출은 검역협상 타결로 2020년부터 가능해짐

\* 주2) 베트남은 별도로 단감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 통계로 같음함

\*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kostat.go.kr), ITC Trademap(www.trademap.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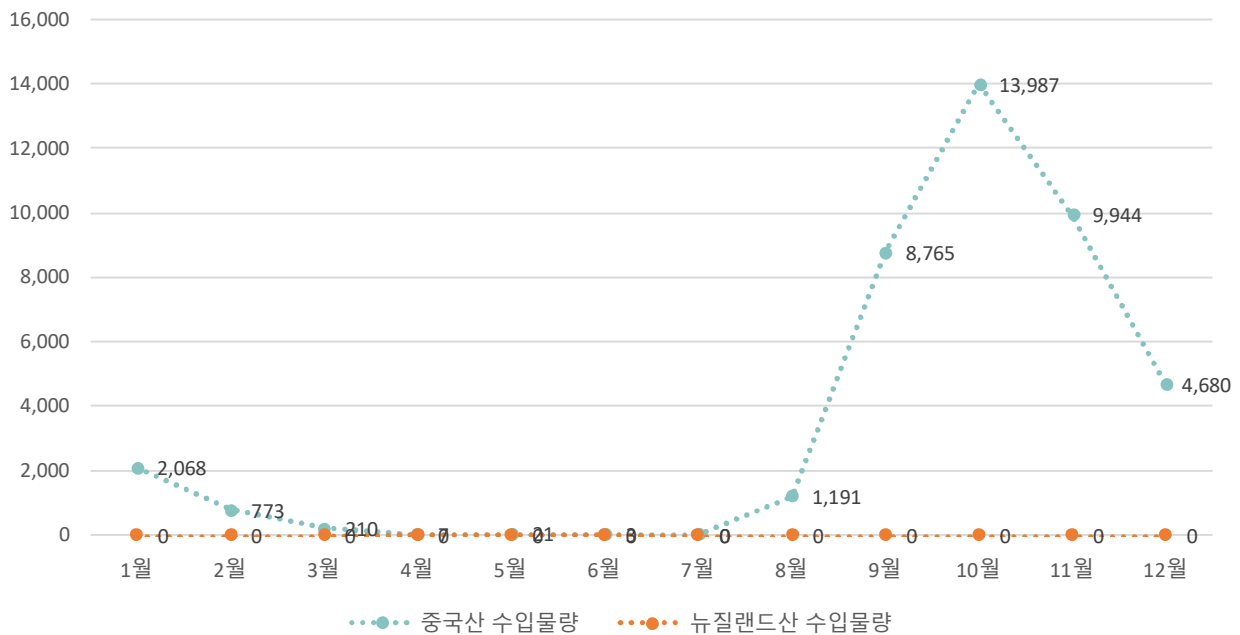


## 2. 수출국 시장분석

□ 베트남은 중국산 단감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통시기 역시 8~1월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유통되고 있음

- 반면 뉴질랜드산 및 호주산은 매우 소량이 유통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중국산이 유통되지 않는 시기에 수입되며 해당 기간 동안 베트남 단감시장을 점유함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베트남산	N/A															
수입산	중국산	41,619톤(99.7%)														
	뉴질랜드산	27톤(0.1%)														
	호주산	7톤(0.002%)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HS Code 0810.70 기준

□ 베트남의 단감 수요는 수입을 통해 충족하고 있으며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산 단감의 검역타결로 시장 진입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단감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소비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에 의존하며 중국산, 뉴질랜드산 위주 소비</li> <li>· 대과를 선호하며 단감 특유의 짙은 맛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기도 함</li> </ul>
품질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산과 한국산 단감 간 외관 및 품질 차이 없음</li> <li>· 뉴질랜드산에는 원산지를 강조하는 스티커 부착하여 안전성 및 품질을 부각함</li> </ul>
한국산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단감이 시장의 99%를 점유하며 한국산은 안전성 측면에서 경쟁우위 있음</li> </ul>

□ 원산지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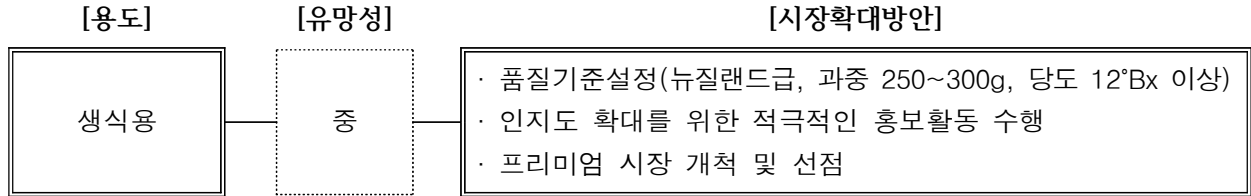
국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베트남산	· 크기 작고 맛이 없어 선호도 낮음	N/A
중국산	· 품질 낮으나 가격경쟁력 보유	N/A
뉴질랜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로 인식되며 한국산보다 아삭함</li> <li>· 유통기간이 길어 상품성 유지 가능</li> </ul>	· [중량] 279~285g [당도] 12 °Bx
호주산	· 유통물량이 매우 적어 평가 어려움	N/A

□ 원산지별 가격비교

구분	자국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수입단가	-	1,785원/kg	7,735원/kg	12,019원/kg
도매가	N/A	N/A	N/A	N/A
소매가	N/A	N/A	6,596원/개	N/A

## IV. 시장확대방안

### 1. 품목유망성



□ 단감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타 과일대비 낮고 가격 중심의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한국산 단감의 포지셔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단감 시장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산과 고품질의 뉴질랜드산 단감으로 양분화되어 있음
  - 중국산 단감은 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며,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중국산 단감의 맛에 대해 현지 소비자 및 유통업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sup>10)</sup>
  - 뉴질랜드산 단감은 대분의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주로 판매되는 품목으로, 한국산 단감보다 아삭하고 유통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음<sup>11)</sup>
  - 베트남산 단감은 크기가 작고 맛이 없어 선호도가 낮음<sup>12)</sup>

□ 한국산 단감의 주출하기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베트남산과 중국산 단감이 주로 유통되며, 11월 호주산 단감이 소량 수입됨

- 베트남산과 중국산 단감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한국산과 직접적인 경쟁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며 고품질로 인식되는 뉴질랜드산이 한국산의 직접적인 경쟁상품으로 판단되나, 유통시기가 달라 한국산 단감의 시장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0) NH농협무역 베트남법인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5.)

11) 베트남 수입업체 Fruits and Greens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4.)

12) NH농협무역 베트남법인 담당자 현지 인터뷰 결과(2019.07.25.)

〈베트남 단감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베트남산							■					
한국산									○	○	○	
중국산	■	■						■				
뉴질랜드산				■								
호주산											■	

\* 주: 한국산의 경우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되지 않아 국내(한국) 단감 주출하기로 같음함

□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검역타결 후 초기 진입 시부터 품질관리와 마케팅에 신중을 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삭한 식감, 고당도로 품질경쟁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인지도</li> <li>· 짧은 유통기한으로 상품성 저하 우려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li> <li>· 뉴질랜드산 주도 하에 프리미엄 시장 존재</li> <li>· 2019년 말 검역타결로 수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감 자체 인지도 부족</li> <li>· 콜드체인 및 인프라 수준 낮아 보관 상 애로사항 있음</li> </ul>



## 2. 시장확대방안

시장확대방안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산(프리미엄) 수준으로 품질향상 및 선별</li> <li>· 과중 300g, 당도 15 °Bx 이상 수준 유지</li> </ul>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슷한 품질의 뉴질랜드산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li> </ul>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 유지를 위한 개선 필요(냉장매대 등 운송 및 유통상 관리)</li> <li>· 뉴질랜드산과 유통시기 겹치지 않아 시장 내 경쟁력 확보 가능 예상</li> </ul>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 및 진열 형태 개선으로 시장진입 초기 한국산 긍정적 이미지 형성</li> <li>· 단감 자체 인지도 확대를 위한 효능, 섭취방법 등 기본정보 제공 필요</li> <li>· 현지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팅 및 적극적 홍보 활동 필요</li> </ul>

□ 현지 시장에서 고급으로 인식되는 뉴질랜드산 단감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생산 및 선별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뉴질랜드산 단감은 현재 베트남에서 고급 상품으로 인식되며 유통됨
  -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뉴질랜드산 단감의 당도는 약 12 ° Bx, 과중 약 250g 이상 300g 이하<sup>13)</sup>로 확인됨
  - 또한 색택과 과형이 고르고 수려한 상품 위주로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 단감(부유)의 탐 프루츠 품질기준은 당도 14.5 ° Bx 이상, 과중 280g±30g 수준으로, 현재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는 뉴질랜드산 단감 대비 품질기준이 우수함
  - 한국산 단감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현행 탐 프루츠 품질기준이 준수된다면 동 시기에 유통되는 베트남산 및 중국산 단감과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본산 및 한국산 단감 품질기준 비교>

원산지	품종	과중	당도
뉴질랜드산(프리미엄)	부유	250~300g	12 ° Bx 이상
한국산(탐프루츠)	부유	280±30g	14 ° Bx 이상

13) 베트남 현지조사 결과(2019.07)

□ 베트남 검역타결 이후 초기 시장진입부터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베트남에서 단감은 별도의 포장 없이 원물상태로 매대에 쌓아놓은 형태로 판매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특히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단감이 해당 방식으로 판매됨
  -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일본산과 뉴질랜드산 단감은 비교적 유통 및 판매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상품별 개별포장 또는 냉장매대에 진열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비중이 높음
  - 한국산 단감 역시 초기 시장진입 시 상품성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냉장매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상품별 소포장으로 상품가치를 제고하여 프리미엄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소포장을 하여 유통할 경우 패키징을 통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소포장 시 발생하는 손실분(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치가 없는 상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수반되어야 함

- 현지 수입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단감은 다른 과일류와 다르게 시장 내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단감의 효능, 섭취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시장선점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켓 테스트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